

편의점 1위 국가 대한민국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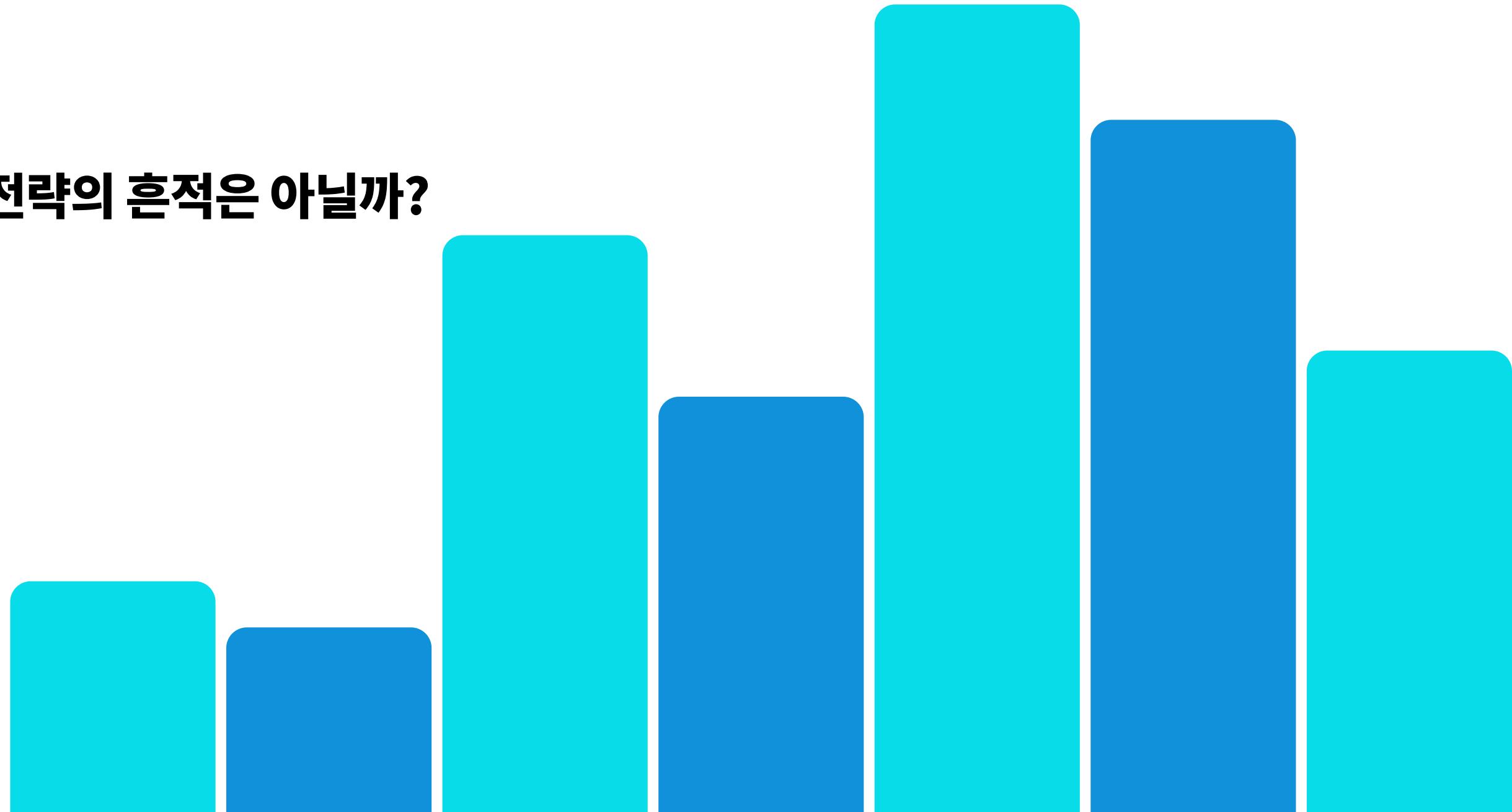
왜 한국에서 편의점은 이토록 많아야만 했는가?

단순한 소비 편의가 아니라면, 편의점 과잉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?

인구 1만 명당 편의점 수, 세계 최상위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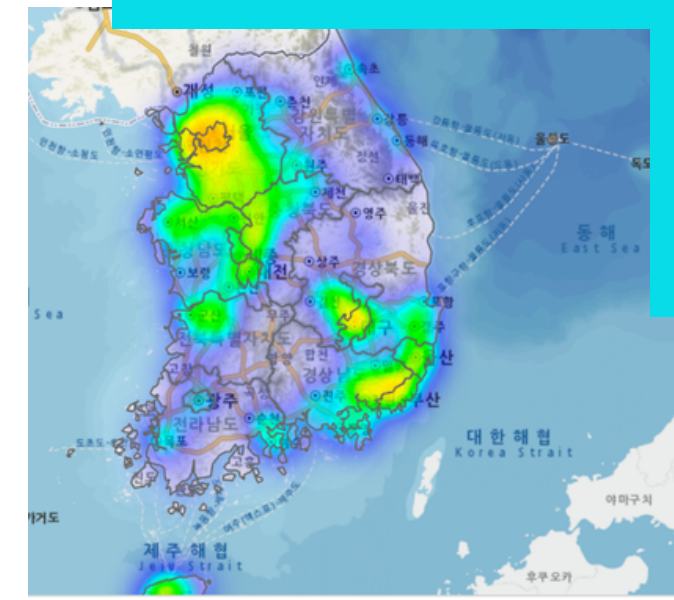
일본·미국 대비 2배 이상

‘편의’라는 이름에 가려진, 사회적 생존전략의 흔적은 아닐까?



편의점, 왜 이렇게까지 많아졌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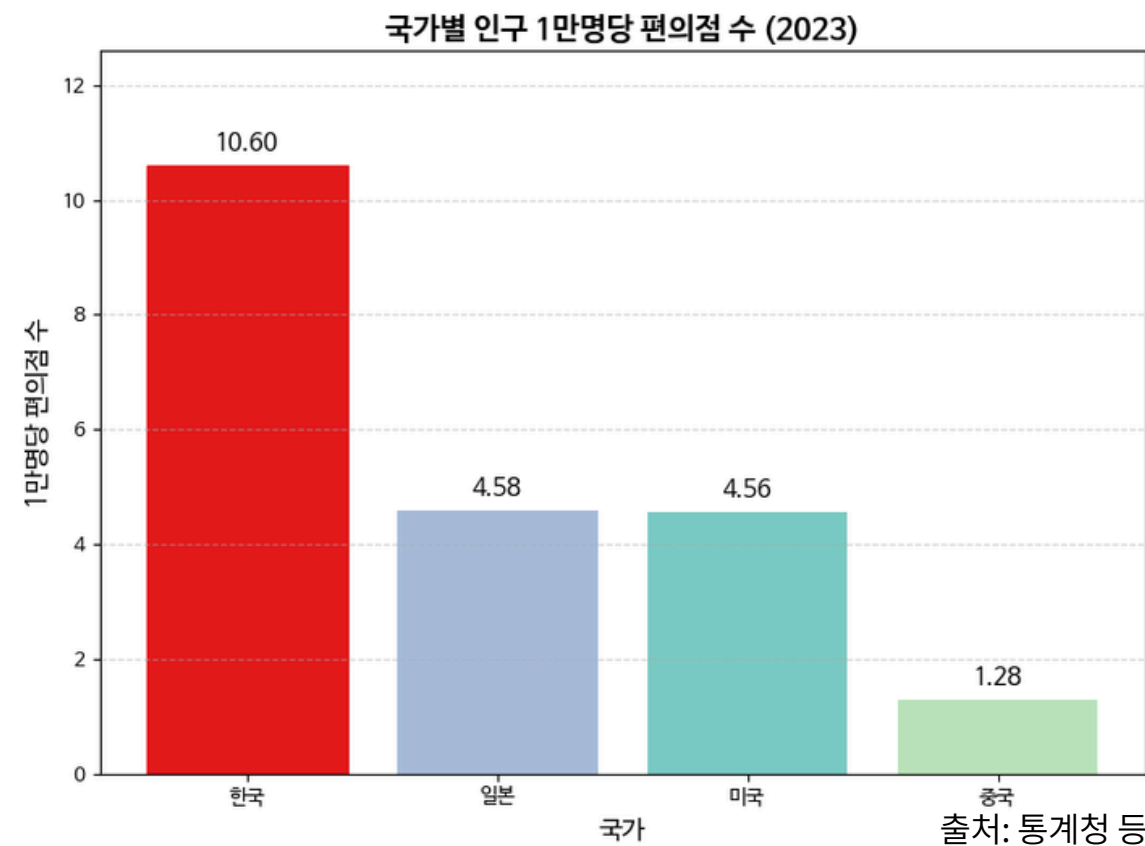
‘편의’의 증가가 아닌, ‘퇴로 없는 사회’의 증거다.



통계청, 전국사업체조사(2023) 편의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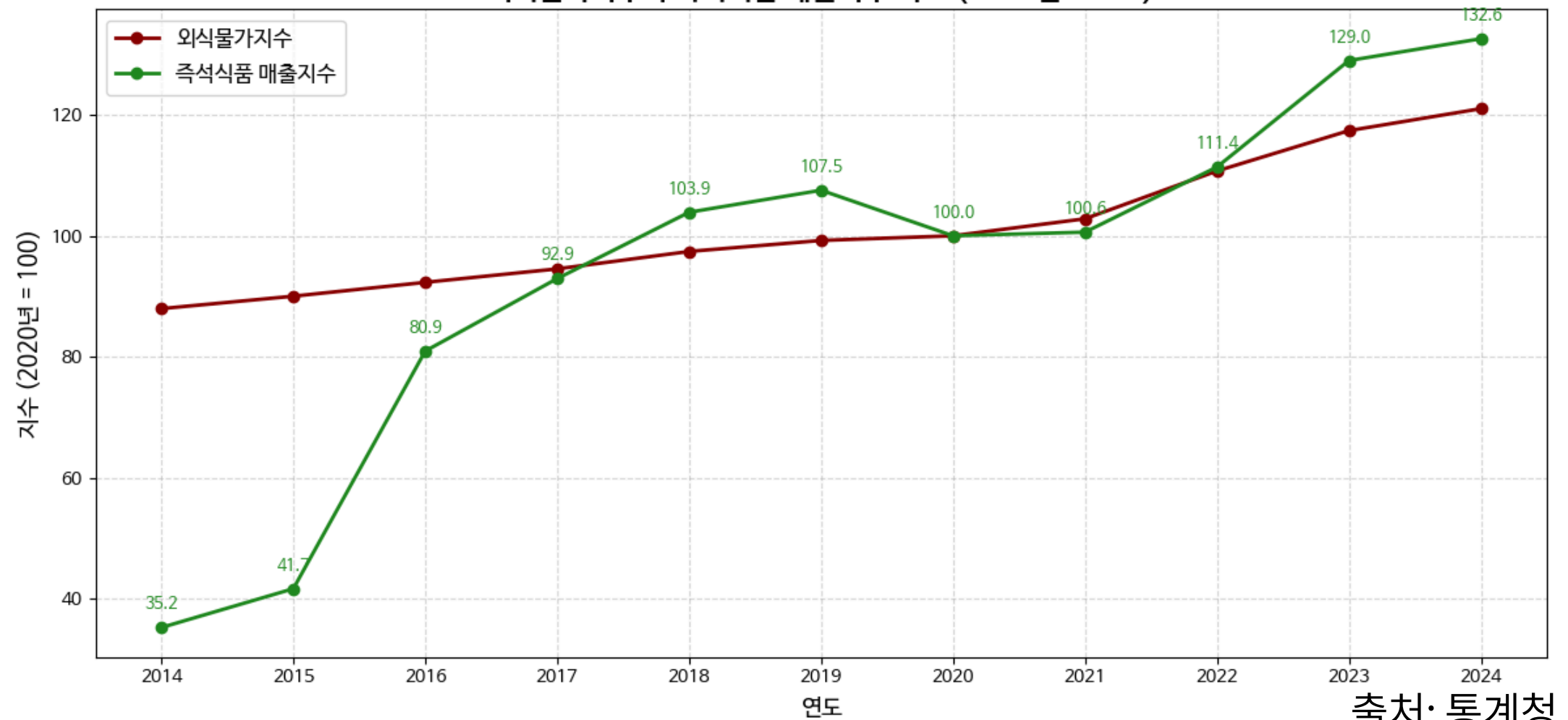
“국내 편의점 수, ‘편의점 왕국’ 일본 넘어섰다?”

- 아주경제, 박희원기자



- 인구 1만 명당 10.6개. 편의점 수 세계 최상위
- 도시 밀집지역에 집중 → 도시 곳곳이 편의점화
- 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점포밀도

외식물가지수와 즉석식품 매출지수 비교 (2020년 = 100)



외식물가 상승 → 즉석식품 매출 증가
→ 편의점은 소비자의 대안, 사회 구조적 퇴로

데이터 선정 및 분석 방법

데이터 선정 배경 및 목적

‘편의점’이라는 업종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,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고령화, 경제지표, 정책효과 등의 구조적 요인을 기반으로 명료하게 밝히려고 한다.

주요 데이터 항목

편의점

- 연도별 점포 수 (c_num), 개·폐점 수, 평균 매출·이익률, 자영업 생존률

인구·노동

- 고령 인구수, 고령 고용률 (50~64세), 자영업자 수, 퇴직자 수

경제

-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, 가계신용/대출, 실업률, 금리, 최저임금 상승률

분석 방법

데이터 전처리

- 연도 통합 기준으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병합
- 결측값 처리 및 lag 변수, 이동평균, 성장률 등 파생 변수 생성

핵심 지표 산출

- 편의점 포화도: 인구 1천 명당 편의점 수
- 구조전환 지수: 자영업 의존도 + 고령화 지표 결합

예측 모델링

- XGBoost: 정책 변수 반영 가능한 구조 예측
- Prophet: 시계열 기반 추세 전환 포착
- LSTM: 딥러닝 기반 장기 패턴 학습
- Ensemble: 위 모델 가중 결합 통한 안정성 확보

기대효과

- 단순 시계열 예측이 아닌, "구조적 해석 기반의 시나리오 예측" 수행
- 낙관/비관 시나리오 도출 및 정책 시뮬레이션 가능

왜 하필 편의점인가? - 수익 측면에서

편의점 :

GS25 기준	A 점포 (GS1타입)
일매출	₩ 1,737,000
일수(1년 평균)	30.4
일매출	₩ 52,804,800
매익률(마진율)	0.28
총 매출 이익(만원)	₩ 14,785,344
점주 이익 배분율(24시 영업)	0.73
경영주(점주)영업 이익(만원)	₩ 10,793,301
지원금 (+)	
폐기지원	₩ 250,000
광고비(담배, 주류)	₩ 500,000
각종 장려금	₩ 500,000
합계	₩ 1,250,000
지출 (-)	
폐기 비용	₩ 400,000
신용카드 수수료	₩ 650,000
재고감모 전입액	₩ 500,000
각종 영업비(각종 수수료, 소모품비, 인터넷, 관리비 등)	₩ 300,000
수도광열비	₩ 800,000
합계	₩ 2,650,000
경영주(점주) 영업 이익 (청산금)	₩ 9,393,301

가맹 편의점 창업시 순수익: 월 375.1만원

*순수익 계산방법[실제 gs25편의점 사장의 매출 계산 방법 활용]

- 월 매출: 5,950만원[GS25 정보공개서 (2023년 기준)]
- 매출 총이익: 1,666만원
- 점주 수익배분율 (GS1 24시간 영업기준): 71%
- 점주 이익배분액: 1,666만원 × 0.71 = 1,182.8만원
- 지원금 (본부지원금): 125만원
- 지출 항목: 265만원
- 점주영업이익: 1,182.8만원+125만원 - 265만원=1,042.8만원
- 임대료: 500만원[출처:상권정보시스템]
- 인건비: 201만원 (2023년 최저시급: 9,620원*주 52시간)
- 1,042.8만원-701만원=341.8만원

50대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노후필요생활비 (개인 기준)를 조사한 결과, 최소생활비는 136.1만원, 적정생활비는 192.1만원으로 조사됐다.

- * 건강한 노년임을 전제할 때 드는 비용으로 ▲최소생활비는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;
- ▲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

출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·중소벤처기업부 (2024). 2023년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(보도자료). (2024-12-31).

순수익: 341.8 > 적정 생활비: 192.1만원(2인가구 기준)

출처: 김작가TV. 「편의점 창업하면 얼마나 벌까?」
[YouTube].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jpyNh0-EDH0>

특히 폐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는 창업 진입장벽이 낮고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 창업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.

편의점 창업 성장단계에 따른 성공요인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- 권용석(2020.10)

왜 편의점 점주가 됐나?

서울 B점주(이하 B점주): “퇴직금으로 뛰어든 만한 업종이 편의점뿐이었다. 인테리어와 집기를 본사가 지원하는 구조여서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부담이 덜했다.”

수도권 A점주(이하 A점주): “가맹비·상품준비금 등 초기자금이 2000만~2500만원 수준이다. 우리가 아는 대형 편의점 브랜드는 다 비슷하다. 아마 진입장벽만은 어떤 업종보다 낮을 거다.”

[PART 5] 편의점주 3인의 인터뷰_월 매출 5000만원도 '빛 좋은 개살구' - 김다린 (2020.09)

“재취업이 어려운 중고령층에게 편의점 창업은 낮은 진입장벽과 즉각적인 생활비 확보라는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.”

왜 하필 편의점인가? - 정책 측면에서

중년층 고용정책

신중년 경력형 일자리

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예비 퇴직 인력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비영리단체, (예비)사회적기업,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

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 직무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

모집·채용, 임금, 승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, 위반 시 인권위에 진정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

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

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, 1,000인 이상 사업장은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, 취업알선, 교육훈련 등의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하는 제도

출처: 50플러스포털 - 서울시50플러스재단

제도는 많지만 실효성 부족

커버리지 부족

네 개 제도를 모두 합쳐도 연간 지원 대상이 '수천~1만명' 규모. 50~60대 미취업·실업자 수(약 100만명) 대비 극히 제한적이다.

보수·지원 기간이 짧아 '다리' 역할 한계

월 100만 원 안팎의 보수(경력형)·월 30~80만 원 인건비 보조(적합직무·계속고용)는 생계 유지 수준에 못 미침. 대부분 1년(최대 2년) 한시 지원이라 종료 후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다.

기업 참여 의향이 낮음

계속고용장려금·적합직무의 신청 기업이 전체 사업장의 0.02~0.1% 수준. 대다수 기업은 규정·서류·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음.

의무제도조차 절반 이상 미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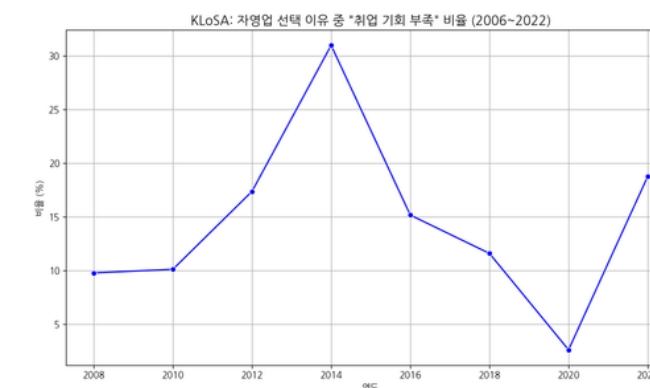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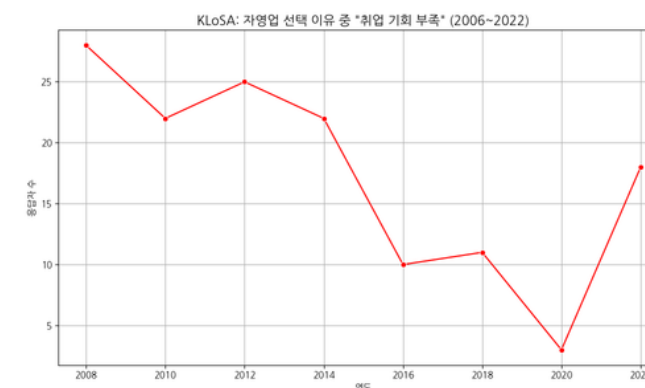
'재취업지원서비스'처럼 법으로 강제된 제도도 실제 현장에서는 절반 가량이 무시되고 있어, 형식적 제도로 전락.

출처: 국민일보 의무지만 안해도 그만?... 대기업 '재취업지원 서비스' 이행률 64%

내려가지 않는 실업률



그 퇴로는 자영업



출처: 장지연, 고령화연구패널조사, 2008 [데이터 세트]. 한국노동연구원 [연구수행기관]. 한국사회과학자료원 (KOSSDA) [자료제공기관], 2013-03-27. <https://doi.org/10.22687/KOSSDA-A1-2008-0123-V1.0>

고령화연구패널조사(KLoSA)에 따르면, 기존 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년층(45세 이상)의 주요 이유는 '취업의 어려움'과 '좋은 직장 부족'이 다수를 차지한다. 특히 "취업 기회 부족"의 성향도 나타나며, 자영업이 '기회의 선택'이 아닌 '생존을 위한 퇴로'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.

자영업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.

이는 고용안전망의 빈틈을 메우는 마지막 선택지로 기능하고 있다.

왜 하필 편의점인가?



“2010년대 중반, 편의점 매출액 증가율 폭등”

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사태로 소비자들이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고 동네 가까운 가게에서 구매를 해결하는 ‘근거리 쇼핑’ 경향이 강화

국내 1인 가구 : 2010년 415만 가구 → 2015년 506만 가구
→ 젊은층의 싱글 라이프스타일과 고령층의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려, 적은 양의 상품이나 즉석 식품을 수시로 구매하는 소비패턴이 자리잡음.

1인 가구의 성장, 한국 편의점이 맞이한 3가지 변화 - 김정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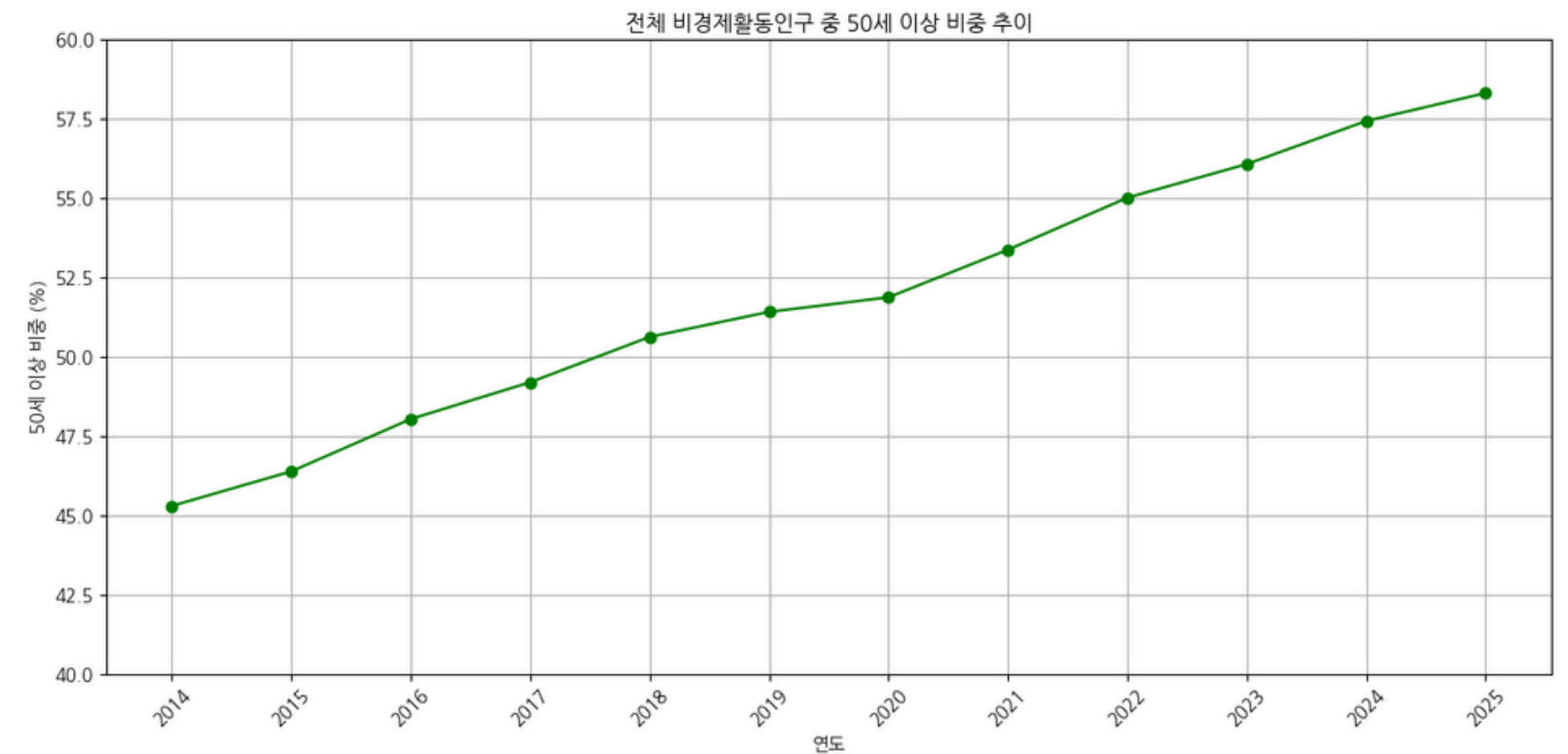
고령층 편의점 창업 확산 -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변화

고령화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이 계속 증가
은퇴 시기 앞당겨짐 + 평균 수명 연장 → “제2의 직업” 찾는 고령층 증가

자본·운영 문턱이 낮고 1인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편의점 매출액 증가율의 상승으로, 편의점이 생계형 창업의 대표 선택지로 부상

- CU 점주 60대 이상 비중: 9%(2014년) → 14%(2016년)
- GS25 점주 60대 이상 비중: 4.9%(2013년) → 8.8%(2016년)
- GS25 점주 50대 이상 비중: 19.3%(2013년) → 25.8%(2016년)

출처: '인생은 예순부터'...60대 이상 편의점 창업 가장 활발 - 안재만



→ 2010년 중반, 자영업 중 편의점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폭

미래 예측 : 낙관 vs 비관

변수	편의점 수에 미치는 영향
고령화	양면성: 창업 공급 증가(+) vs 소비 위축(-)
자영업 전환	정(+): 은퇴자 생계형 창업 증가
고용률	부(-): 고용률 상승 시 창업 수요 감소
가계부채	부(-): 소비 위축 및 운영 리스크 증가
기술변화	정(+): 무인점포 도입으로 효율성 개선
1인 가구 증가	정(+): 핵심 고객층 확대
상권 포화도	부(-): 과밀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

- 낙관 시나리오 (중고령자 양질 일자리 성공)**
- 2050년: 46,472개 (-18.7%) → 일본 수준 달성
 - 특징: 계획적 시장 안정화, 생계형 창업 자연 감소

- 비관 시나리오 (고령자 일자리 정책 실패)**
- 2050년: 52,359개 (-8.4%) → 여전히 과포화
 - 특징: 창업-폐업 악순환 지속, 세계 1위 밀도 유지

4대 핵심 지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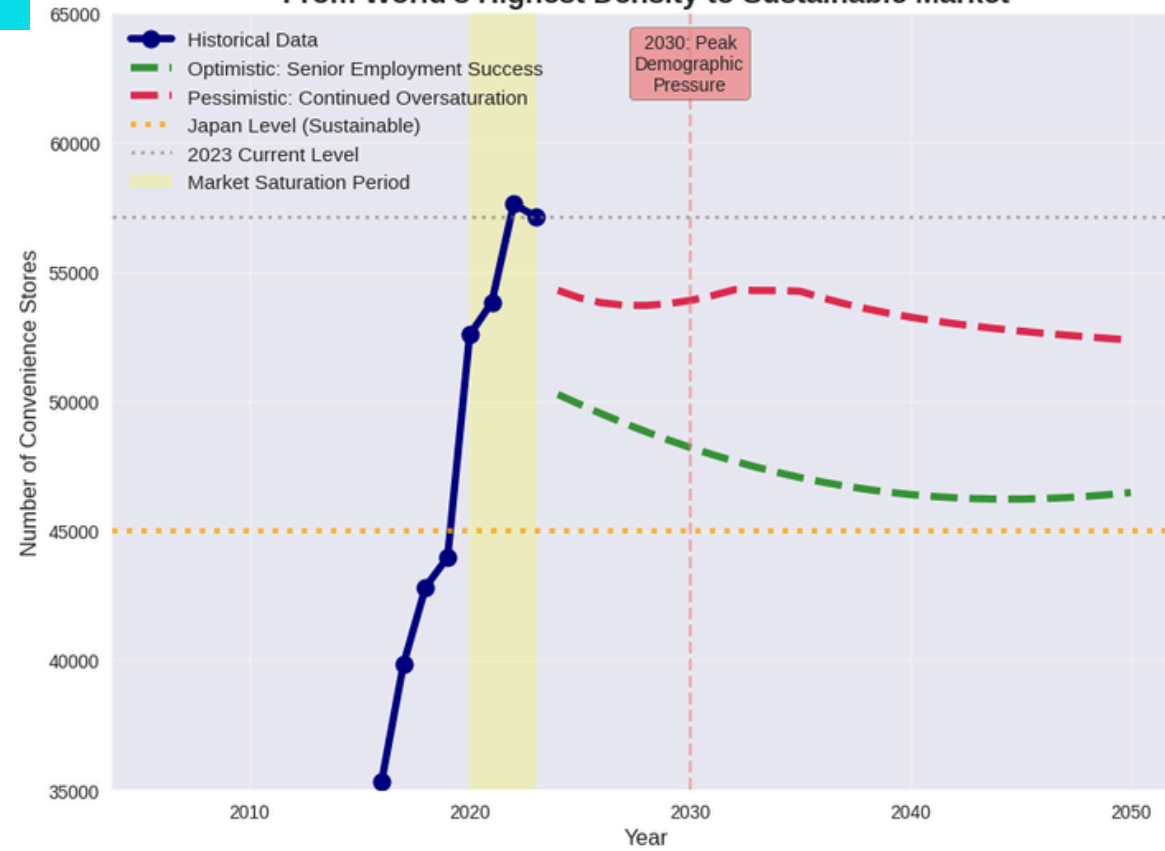
1. 편의점 수 추이(좌상단)
 2020년 시장포화 시작, 2030년 정책 분기점
 일본 기준선(45,000개) 대비 현재 +27% 과공급

2. 가계부채 위기(우상단)
 낙관: 90% 안정화 vs 비관: 105% 위험수준
 부채 부담이 편의점 창업 압력의 핵심 동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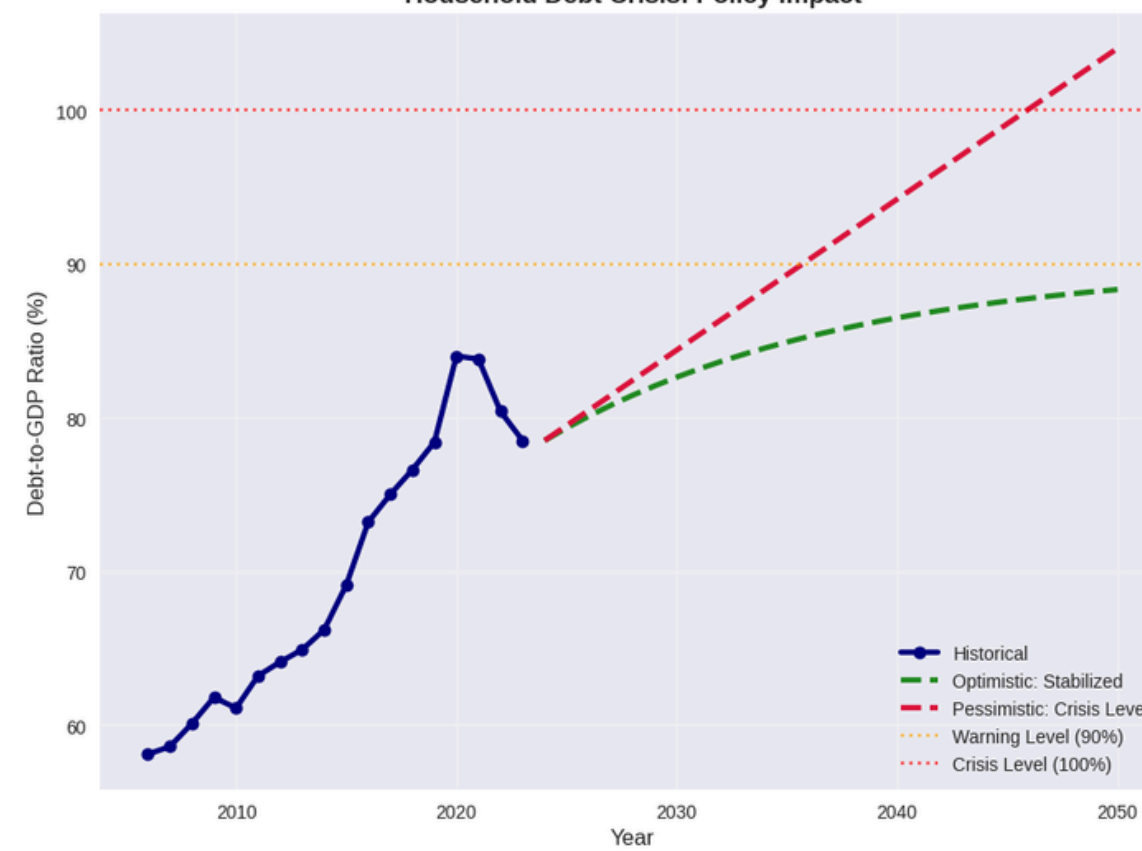
3. 시장 효율성(좌하단)
 부채 1조원당 편의점 수로 측정
 낙관: 효율성 개선 vs 비관: 비효율 심화

4. 모델 정확도(우하단)
 $R^2 = 1.000$ (완벽한 예측 모델)
 18년간 데이터 기반 신뢰할 수 있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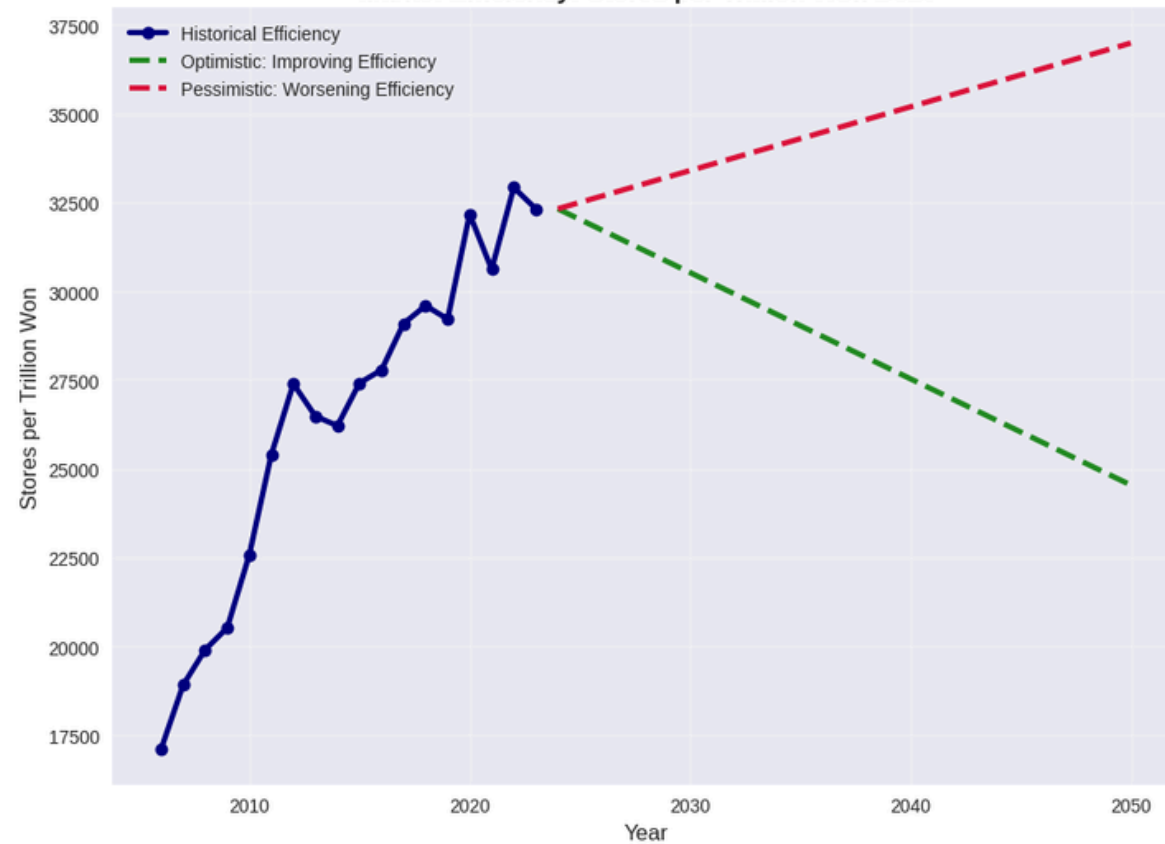
South Korea Convenience Store Reality Check (2024-2050)
 From World's Highest Density to Sustainable Marke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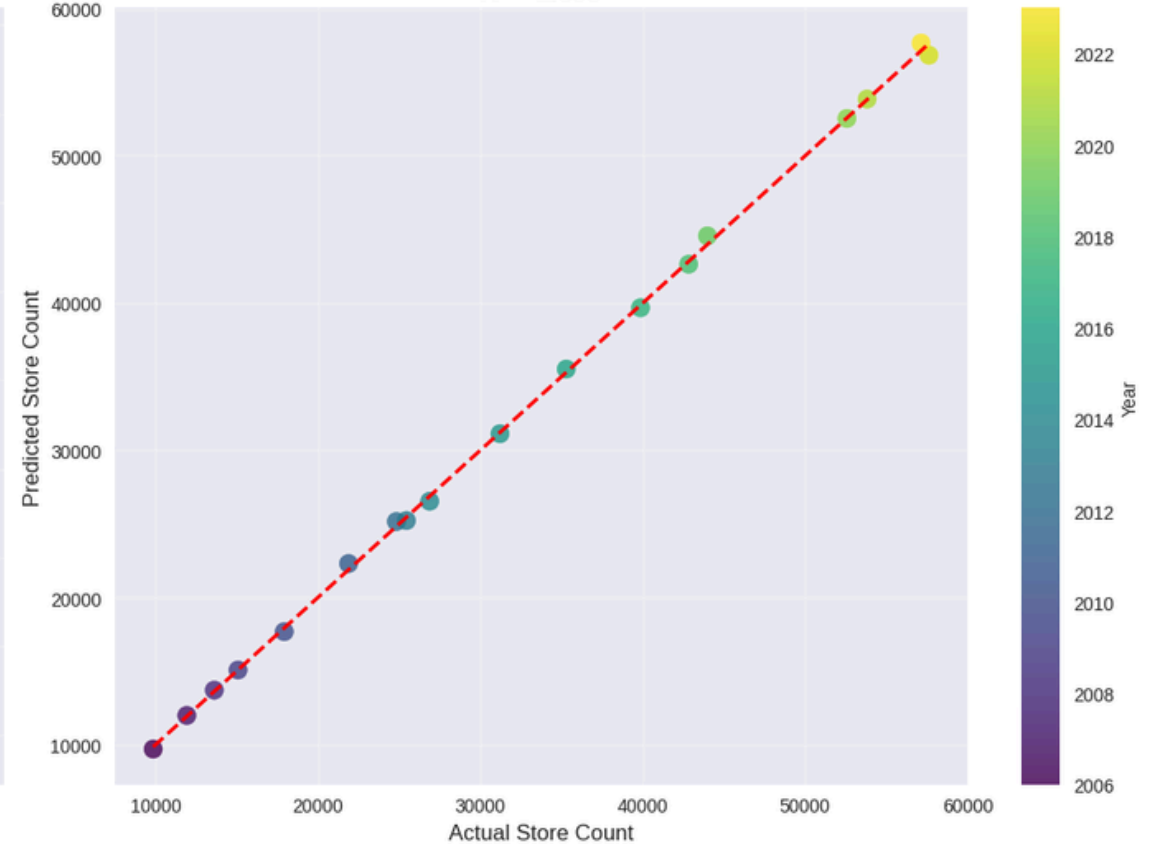
Household Debt Crisis: Policy Impact



Market Efficiency: Stores per Trillion Won Debt



Model Validation (Linear Regression)
 $R^2 = 1.000$



낙관 시나리오

핵심 메시지

"27년간 계획적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시장 달성"

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여, 생계형 편의점 창업을 자연스럽게 감소 시장의 계획적 안정화 -> 일본 수준의 지속가능한 편의점 생태계 구축

직접적 성과

- 75만개 양질 일자리 창출
- 20만개 불필요한 편의점 개설 방지
- 200조원 투자 낭비 예방

시장 질적 개선

- 점포당 매출 20% 향상 (경쟁 완화)
- 일본 대비 +7.8% 수준으로 거의 수렴
- 지속가능한 시장 밀도 달성

투자 수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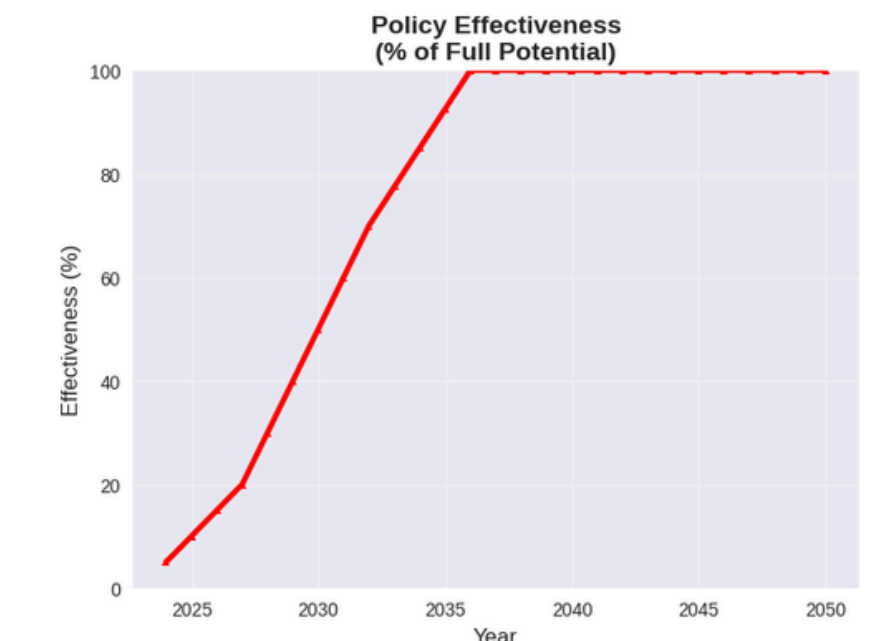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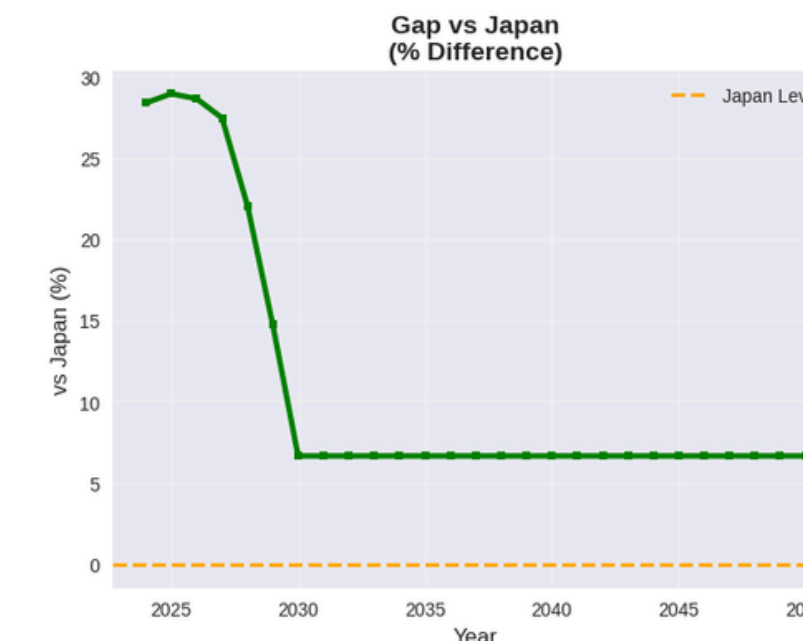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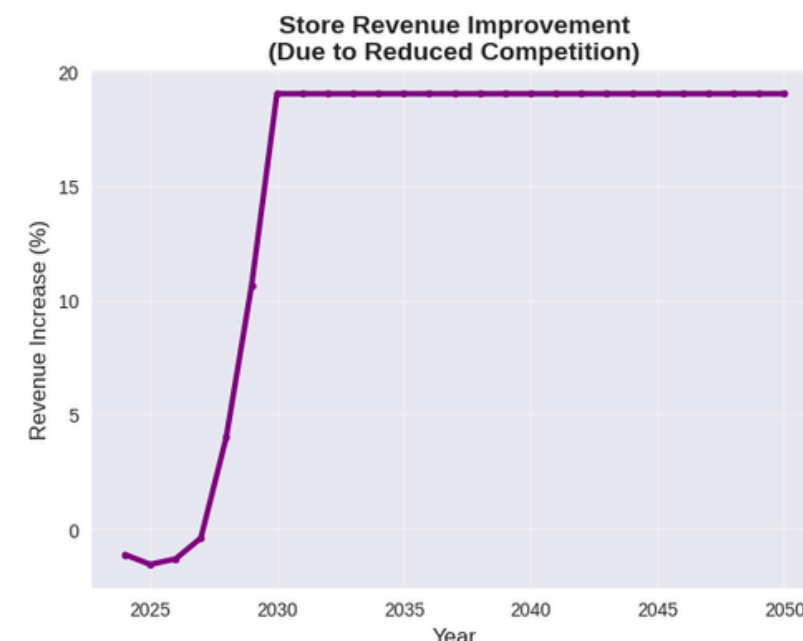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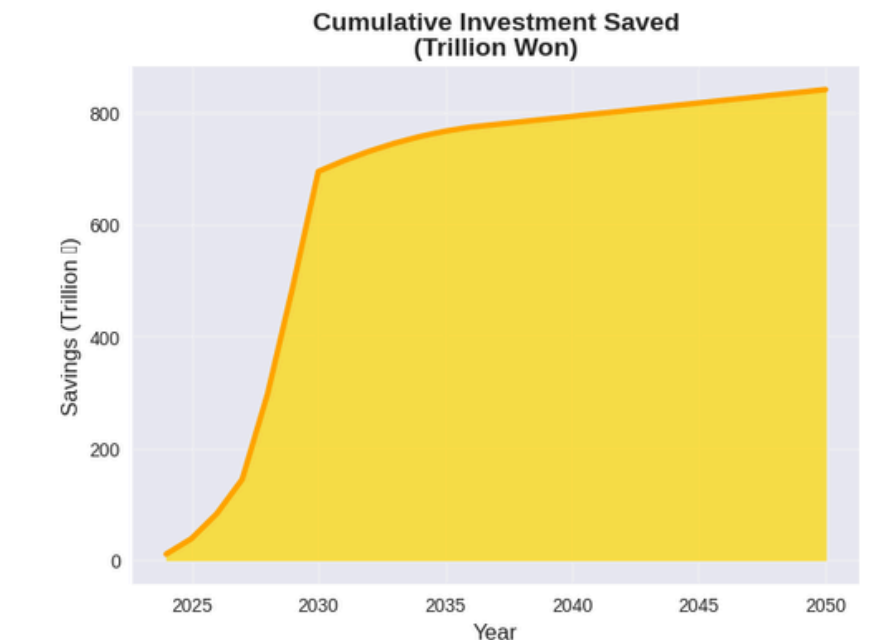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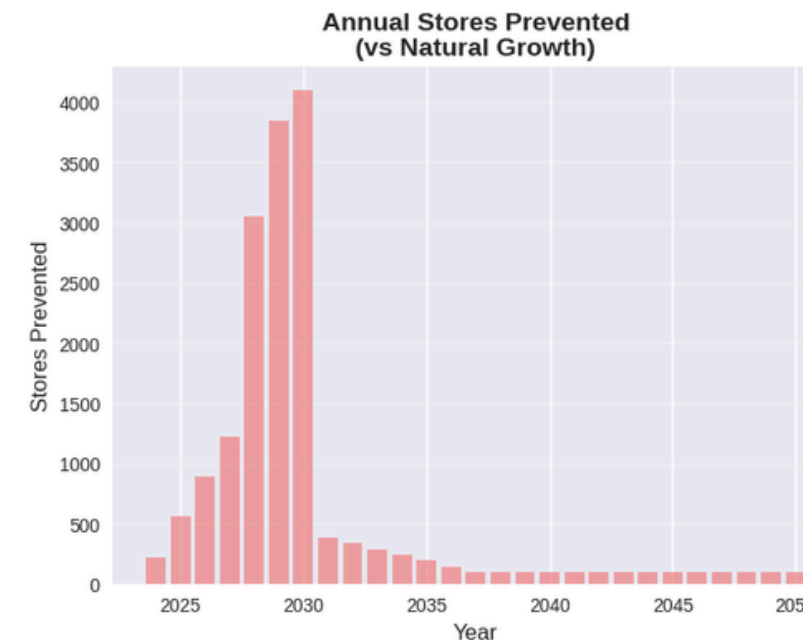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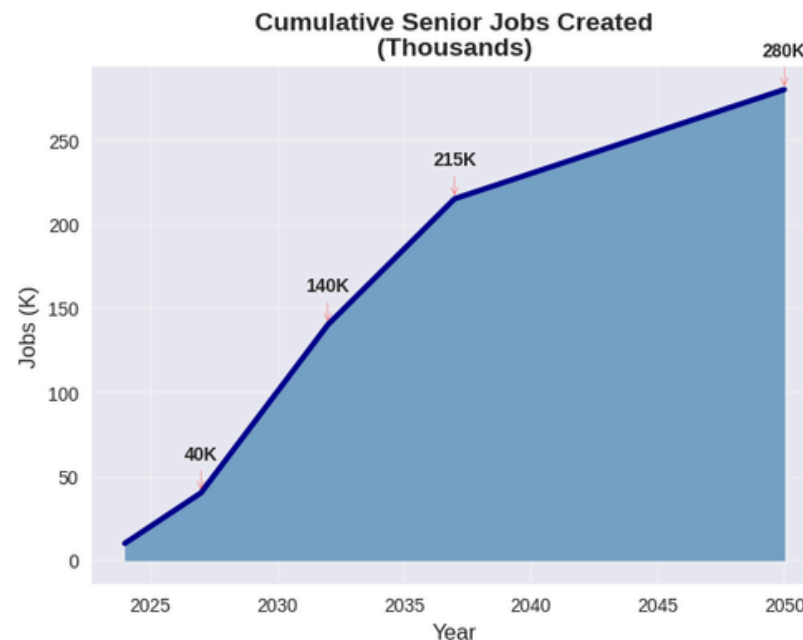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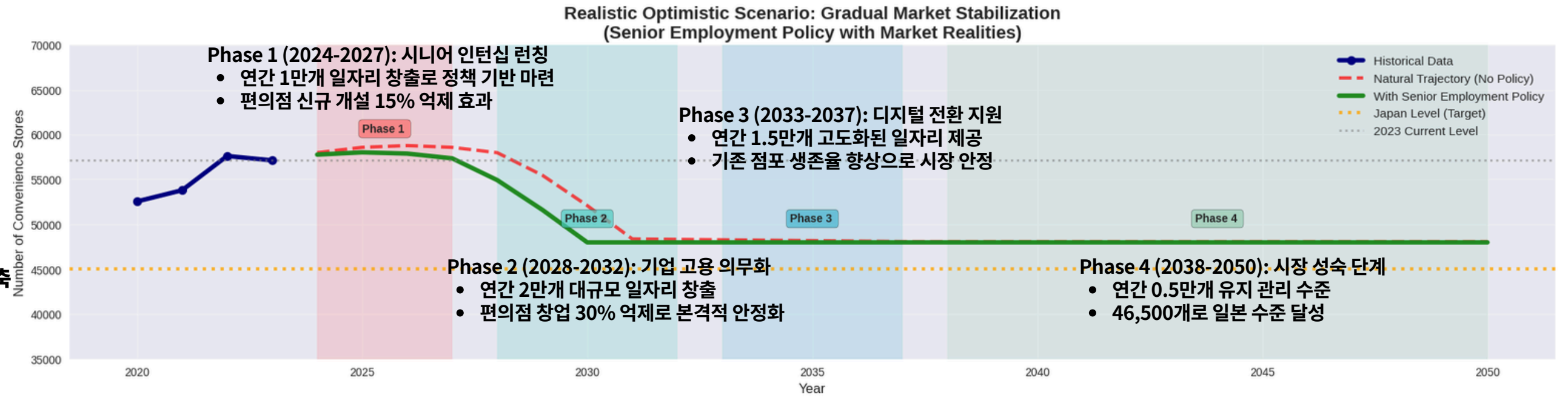
- 54조원 정책 투자로 910조원 편익 창출
- ROI 1,585%, 회수 기간 4년
- 순편익 856조원

핵심 성공 요인

1. 단계적 접근: 4단계에 걸친 체계적 정책 실행
2. 정책 시너지: 75만개 일자리 달성 시 100% 정책 효과 발휘
3. 시장 친화적: 강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
4. 국제 벤치마킹: 일본 수준의 지속가능한 시장 구조 달성

성과: "편의점 공화국"에서 "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"로의 성공적 전환

- Cumulative Senior Jobs Created: "누적"
- Annual Stores Prevented: "억제"
- Cumulative Investment Saved: "절약"
- Store Revenue Improvement: "개선"
- Gap vs Japan: "수렴"
- Policy Effectiveness: "상승"



비관 시나리오

“정책 방치가 불러온 27년간의 악순환“

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면서,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창업에 몰리는 절망적 상황 고객은 줄어드는데 점포는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대량 폐업과 사회적 비용 급증

경제적 파급효과

즉각적 피해:

- 45만개 편의점 창업 실패 누적
- 200조원 누적 부채 부담
- 17만명 중고령자 영구 실업

사회적 비용:

- 연간 15조원 사회적 비용 (실업급여 + 가족 부담 + GDP 손실)
- 일본 대비 +16% 과공급 상태 영구 지속
- 편의점 "세계 1위" 불명예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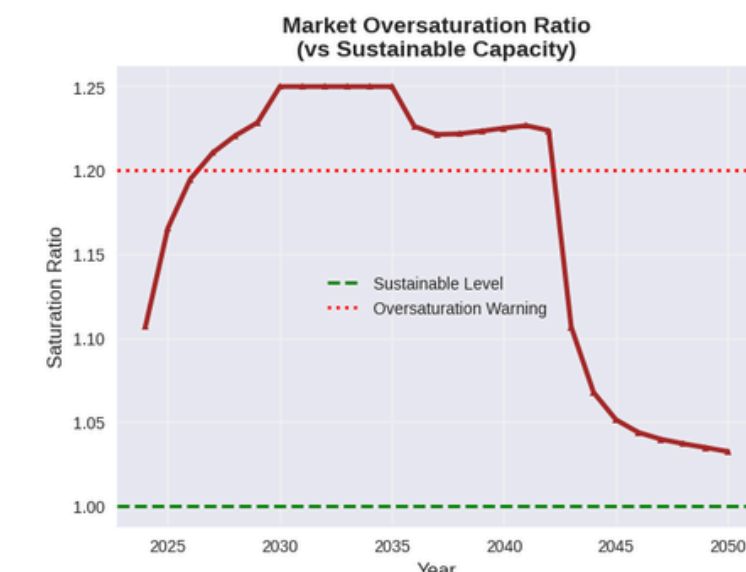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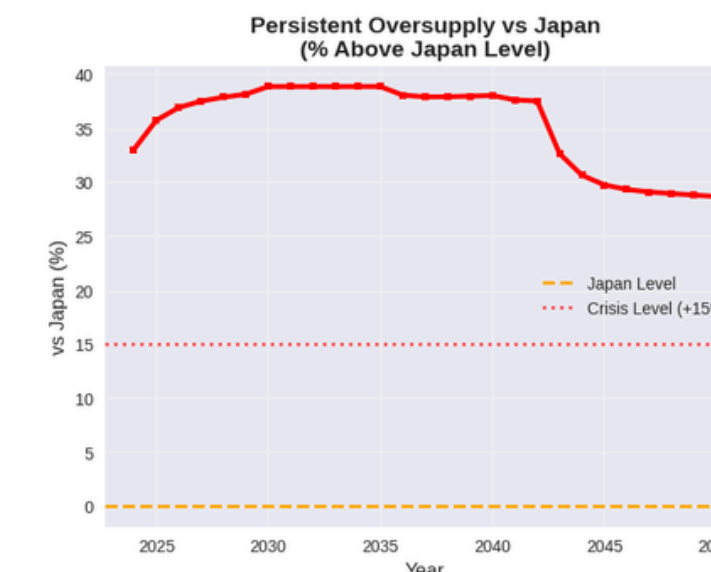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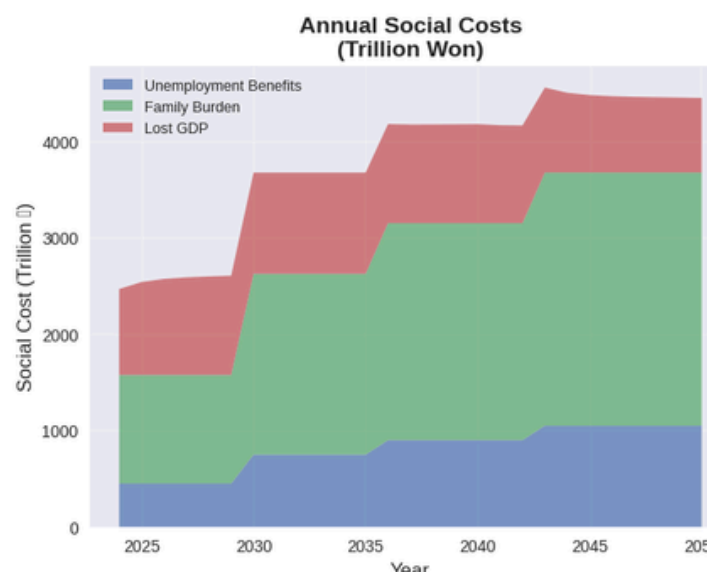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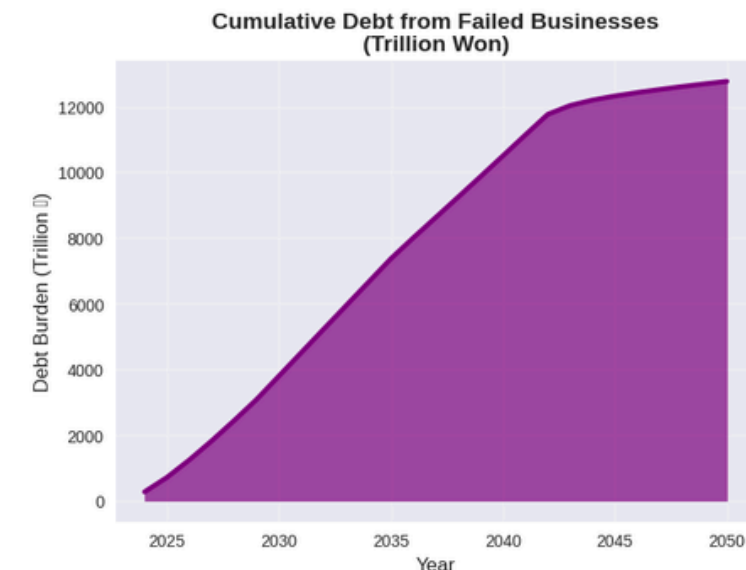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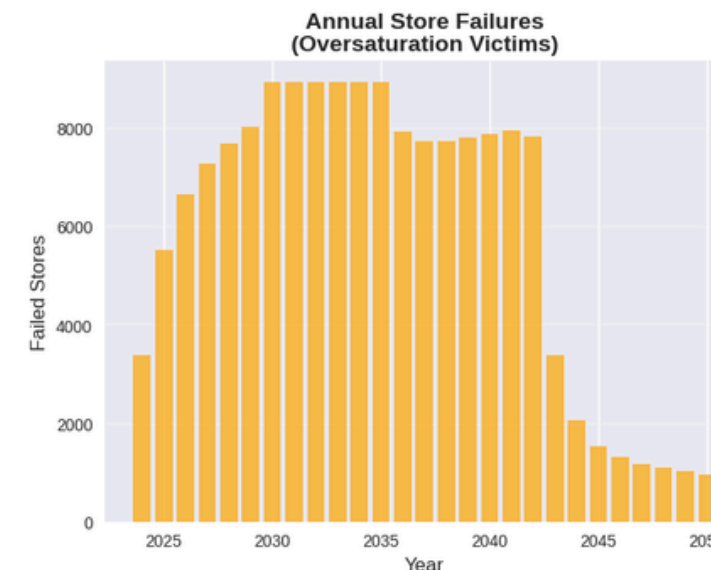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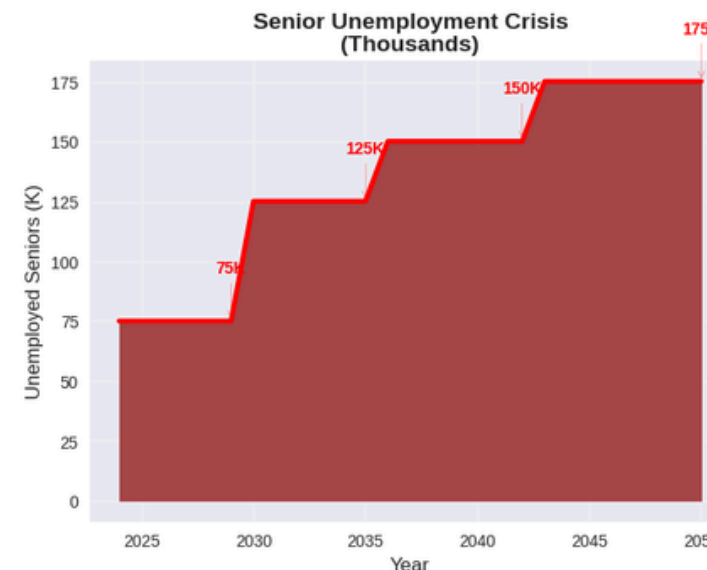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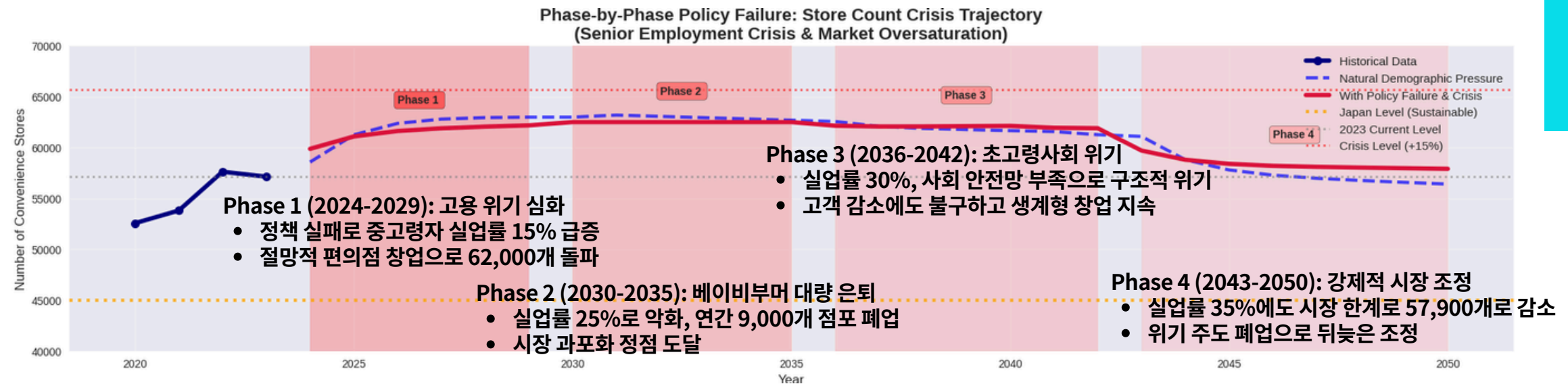
기회비용:

- 낙관 시나리오 대비 506조원 순 손실
- 정책 투입 대비 10.4배 손실

핵심 인사이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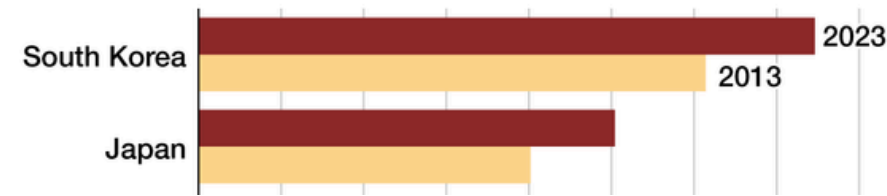
1. 구조적 악순환: 일자리 부족 → 절망적 창업 → 과포화 → 폐업 → 재창업
2. 인구 역설: 고령화로 고객은 줄어드는데 중고령자 창업은 늘어나는 모순
3. 정책 공백의 대가: 54조원 투자 회피가 560조원 손실로 확대
4. 국제적 위상: 지속가능하지 않은 과밀 시장의 부정적 사례

- Senior Unemployment Crisis: "폭증"
- Annual Store Failures: "폐업"
- Cumulative Debt: "부채"
- Annual Social Costs: "부담"
- Persistent Oversupply vs Japan: "고착"
- Market Oversaturation Ratio: "붕괴"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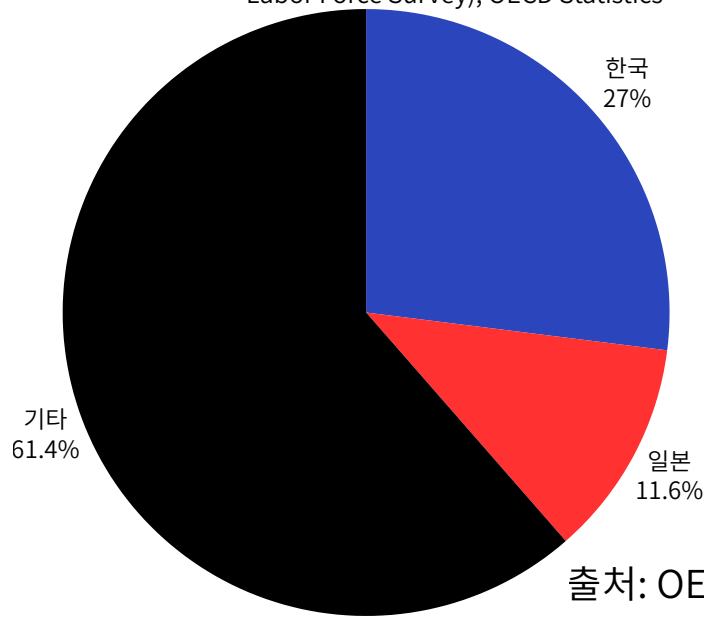


고용률이 높은 한국, 그러나 질적 전환은 아직

Senior Employment Rate for Selected Countri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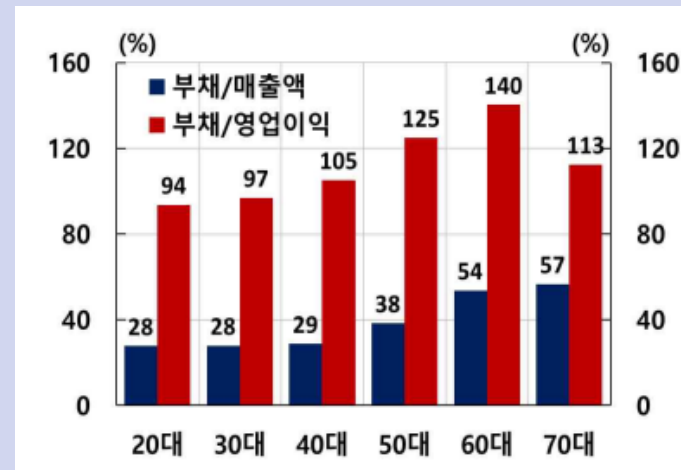
출처: Nippon.com,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(Japan Labor Force Survey), OECD Statistic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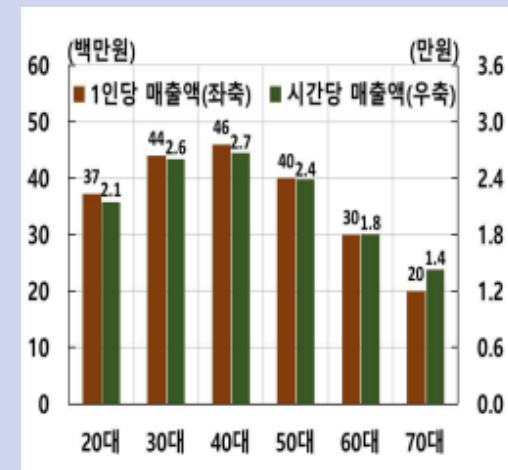
출처: OECD, Statisa Charts

“왜 고용률은 더 높은데, 상황은 더 위험한가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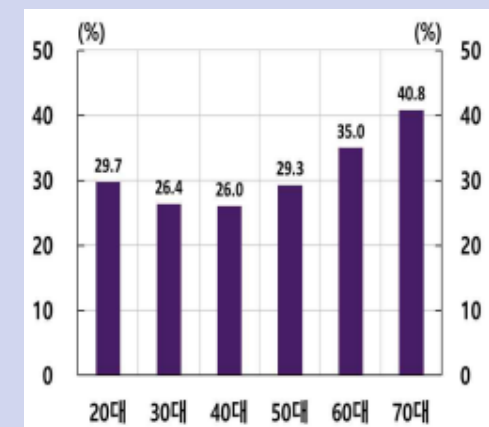
고용률 = 단순히 "일하는 사람 수"의 비율 -> 고용의 양적 지표



[신규 개인사업자 연령별 누적 부채비율]



[신규 개인사업자 연령별 1인당·시간당 매출액]



[영업이익이 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비중]

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성이 확대

출처: 한국노동연구원(2025)

전체 고용 대비 자영업자 비율(%)

지금 필요한 건 고용의 '양적 확대'가 아닌 '질적 전환'

● 일본

- 65세이상 고용률 11.6%
- 자영업 비중: 낮음 (임금근로 중심)
- 주된 고용형태: 재고용·경력활용
- 위험요소: 낮음

● 한국

수치상 높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

- 65세이상 고용률: 40%
- 자영업 비중: 매우 높음 (자영업 중심)
- 주된 고용형태: 생계형 자영업
- 위험요소: 부채·폐업 위험

[표 2]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내용 및 추진 상황

주요 개정 내용	연도별 개정 추진 상황	
기초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① 정년연장, ② 계속고용제도(노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) 도입, ③ 정년제도 폐지 중 택일토록 의무화	2000년	65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
	2006년	65세까지 고용확보 의무화 (대상자 한정)
	2013년	65세까지 희망자 전원 고용확보 의무화
	2020년	70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

자료: 한국금융연구원(2020)

ILO "Decent Work" 프레임 / OECD "Working Better with Age" (2018) / 한국노동연구원(2025)

결론 및 제언

[표 3] 시나리오별 고령자 연소득 흐름				[표 4] 상용직·자영업 연소득 변동성	
55~59세	정년 후 경로	60~64세	65~69세	유형	연소득 표준편차
상용직 소득 ¹⁾ 5,090만원	① 상용직 잔류	(정년 전 소득 70%) 3,563만원	(정년 전 소득 50%) 2,545만원	60세 이후 상용직	238만원
		(정년 전 소득 60%) 3,054만원	(정년 전 소득 40%) 2,036만원		
		(정년 전 소득 50%) 2,545만원	(정년 전 소득 30%) 1,527만원	60세 이후 자영업	470만원
	② 자영업 진입	자영업 소득 ¹⁾ 2,835만원	자영업 소득 ¹⁾ 2,067만원		

주: 1) 상용직 근로자, 자영업자의 해당 연령대 가구주 소득(근로소득+사업소득) 중앙값
자료: 통계청 가계동향조사, 저자계산

주: 1) 연소득 변동성은 개인의 종사상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소득 시계열의 표준편차 중앙값을 의미
자료: 한국노동패널조사, 저자계산

시나리오 I (상용직 유지)

55~59세: 상용직 근무
60~64세: 상용직 계속근로 (소득 60%로 조정)
65~69세: 상용직 시간제 근로 (소득 40%로 조정)
소득 안정성: 소득 안정적 (기업지원제도 활용 시 유리)
정책 시사점: 상용직 계속근로 지원제도 확대 필요

시나리오 II (자영업 전환)

55~59세: 상용직 근무
60~64세: 자영업 전환 (초기 창업비용 발생)
65~69세: 자영업 지속
소득 안정성: 소득 변동성 높음, 전환비용 큼
정책 시사점: 자영업 진입 최소화 유도 필요

정책 제안: "K-편의점 2050 플랜"

1. 골든타임: 2025-2030년

베이비부머 은퇴 완료 전 선제적 대응 필수
2030년 = 정책 성공 여부의 분수령

2. 정책 목표

중고령자 양질 일자리 연간 20,000개 창출
10년간 20조원 투자 → 4년 만에 회수

3. 최종 목표

"편의점 공화국" 불명예 탈피
일본형 지속가능한 편의점 생태계 구축

구분	일본 (현재)	한국 낙관 시나리오	한국 비관 시나리오
편의점 수	45,000개	48,500개	57,900개
인구 대비 밀도	2,153명/점포	980명/점포	810명/점포
시장 상태	성숙·안정	지속가능한 성장	만성 과포화
점포 수익성	높음	개선됨	악화됨
국제 평가	모범 사례	성공 모델	반면교사

- 핵심 해법: 자영업 억제 → 양질의 임금 일자리 제공
- 골든타임: 2025~2030년 베이비부머 완전은퇴 전 선제 개입 필요
- 정책패러다임 전환: 생계형 창업 유도가 아닌 창업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구조개혁

“편의점 공화국 →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”

출처

1. 정부 및 공공기관 통계

통계청 (Statistics Korea)

통계청 KOSIS, 가계신용 통계 (2006-2023)

통계청, 장래인구추계 (2022)

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EAPS) - 자영업자 통계

통계청, 서비스업총조사 - 편의점 가맹점 수 통계

한국은행 (Bank of Korea)

한국은행 ECOS(경제통계시스템), 가계부채 통계

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 -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

중소벤처기업부

중소벤처기업부, 소상공인 실태조사 (2023)

관계부처 합동, K-뉴딜 종합계획 (2020)

2. 업계 및 협회 자료

한국편의점산업협회

한국편의점산업협회, 편의점 통계 연보 (2023)

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발표자료

3. 언론 보도 및 뉴스

주요 경제지

"편의점 성장률 0%대 진입", 경향신문 (2023.05.26)

"코로나도 버텼는데... 편의점·카페 '줄폐업', 성장률은 '0%대' 바라본다", 경향신문 (2025.05.26)

"빚 갚느라 소비 발목... 가계부채가 소득 1.7배", 매일경제 (2024)

"GS25, 20대 청년 편의점 점주 모시기..."창업하면 300만원 지원에 보증금 면제"", 매일경제 (2023)

전문지 및 업계지

"일본 편의점 밀도 대비 한국 2.3배", 아주경제 (2025.02.03)

"한국 편의점 수 일본 넘어서", 비즈니스코리아 (2023)

"50대 이상 고용률 OECD 최하위", 서울뉴스통신 (2023)

기타 언론

"코로나 자영업 폐업률 25% 육박", 오마이뉴스 (2022)

"폐업 할 수도 없고, 안 할 수도 없고...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", 오마이뉴스 (2023)

"사장님 10명 중 4명 '60세 이상'...10년새 48% 증가", 농민신문 (2025.05.15)

4. 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

연구기관 보고서

중소기업연구원, 편의점 업계 동향 보고서

산업연구원, 소상공인 정책 연구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, 무인점포 관련 연구보고서

출처

5. 국제 비교 자료

일본 관련

"계산대 점령한 외국인...韓 닳은 은퇴후 사장님·점포포화 고민[편의점 왕국 日]", 아시아경제 (2024.03.18)

국제 통계

OECD, 고령자 고용률 통계

각국 편의점 밀도 비교 자료

6. 온라인 데이터베이스

공공데이터

KOSIS 국가통계포털

e-나라지표 (국정모니터링지표)

서울열린데이터광장

민간 데이터

신한카드 빅데이터 보고서 (편의점 관련)

각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IR자료

7. 법령 및 정책자료

정책 문서

편의점 출점 자율규약 관련 자료 (2019년 시행)

최저임금 인상 정책 자료

소상공인 창업지원정책 관련 문서

주: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데이터와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,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검증하여 활용하였습니다.

출처

KOSIS 프랜차이즈 통계(가맹점) 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sso=ok&returnurl=https%3A%2F%2Fkosis.kr%3A443%2FstatHtml%2FstatHtml.do%3Fconn_path%3DMT_ZTITLE%26list_id%3DJ_001%26obj_var_id%3D%26seqNo%3D%26tblId%3DDT_FR0001%26vw_cd%3DMT_ZTITLE%26itm_id%3D%26language%3Dkor%26lang_mode%3Dko%26orgId%3D101%26

일본 프랜차이즈 체인 통계 조사 <https://www.jfa-fc.or.jp/particle/29.html>

미국 편의점 점포 통계 <https://www.convenience.org/Research/Convenience-Store-Fast-Facts-and-Stats/FactSheets/IndustryStoreCount>

중국연쇄경영협회 <http://www.cdfa.org.cn/portal/cn/lsbq.jsp?type=10003&pn=3>

인구수 통계 https://www.worldometers.info/world-population/south-korea-population/?utm_source=chatgpt.com

KOSIS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(품목성질별: 2020=100) 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sso=ok&returnurl=https%3A%2F%2Fkosis.kr%3A443%2FstatHtml%2FstatHtml.do%3Fconn_path%3Di3%26tblId%3DDT_1J22112%26orgId%3D101%26

KOSIS 편의점 매출 동향(품목별) 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sso=ok&returnurl=https%3A%2F%2Fkosis.kr%3A443%2FstatHtml%2FstatHtml.do%3Fmode%3D%26conn_path%3D%26list_id%3D%26dbUser%3DNSI.%26tblId%3DDT_11523_300%26vw_cd%3DMT_ZTITLE%26itm_id%3D%26language%3Dko%26pub%3D%26orgId%3D115%26

장지연. 고령화연구패널조사, 2008 [데이터 세트]. 한국노동연구원 [연구수행기관]. 한국사회과학자료원 (KOSSDA) [자료제공기관], 2013-03-27, <https://doi.org/10.22687/KOSSDA-A1-2008-0123-V1.0>.

고용조사분석시스템 고령화연구패널(KLoSA) <https://survey.keis.or.kr/klosa/klosadownload/List.jsp>

김작가TV. (n.d.). 편의점 창업하면 얼마나 벌까? [YouTube].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jpyNh0-EDH0>

Nippon.com,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(Japan Labor Force Survey), OECD Statistics (검색일: 2025.06.20)

한국노동연구원. (2025). 『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: 그 이유와 대응 방안』. 제2025-12호. 한국노동연구원.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·중소벤처기업부 (2024). 2023년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(보도자료). (2024-12-31).

기업경제연구소. 「일본 소상공인 증감 동향과 원인 분석」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역보고서, 2016.8.

출처

편의점 성장세, 13분기 내리 하락..3년전 대비 1/7토막

<https://www.biznews.or.kr/mobile/article.html?no=9473#:~:text=,%EC%97%90%20%EA%B7%B8%EC%B9%9C%20%EA%B2%83%EC%9C%BC%EB%A1%9C%20%EC%A1%B0%EC%82%AC%EB%90%90%EB%8B%A4>

서울시50플러스포털

<https://50plus.or.kr/detail.do?id=30273111>

'인생은 예순부터'...60대 이상 편의점 창업 가장 활발

https://cbiz.chosun.com/svc/bulletin/bulletin_art.html?contid=2017030301104#:~:text=%EC%97%85%EA%B3%84%20%EA%B4%80%EA%B3%84%EC%9E%90%EB%93%A4%EC%9D%80%2060%EB%8C%80%20%EC%9D%B4%EC%83%81%EC%9D%98%20%ED%8E%B8%EC%9D%98%EC%A0%90,%EC%9E%88%EB%8B%A4%EB%8A%94%20%EC%9E%A5%EC%A0%90%EC%9D%B4%20%EC%9E%88%EA%B8%B0%20%EB%95%8C%EB%AC%B8%E2%80%9D%EC%9D%B4%EB%9D%BC%EA%B3%A0%20%ED%96%88%EB%8B%A4

출처: https://www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6550178&utm_source=chatgpt.com

국민일보 의무지만 안해도 그만?... 대기업 '재취업지원서비스' 이행률 64%

1.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

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 (localdata.kr)

→ 편의점 개·폐업 수 추적 및 평균 생존기간 산정에 활용

2.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

<https://data.seoul.go.kr>

→ 서울 지역 편의점 밀도, 지역별 상권 특성 파악에 활용

3. 국가공간정보포털

<https://www.nsd.go.kr>

→ 지하철, 도로, 건축물 정보 등 상권 접근성과 입지 조건 분석에 활용

4.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

<https://smartpolice.bigdata.go.kr>

→ 직장인구 및 생활인구 분석 기반 데이터 활용

5. 기타 공공 데이터 플랫폼

KOSIS (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) 외에도 e-나라지표,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에서

→ 가계부채, GDP, 고용률, 인구 구조 등의 국가통계 확보

6. 연구 기반 파일

「공공데이터와 설명가능한 AI 기법을 활용한 자영업 상권 분석과 장기 생존 예측」 PDF 논문

→ 서울시 음식점 생존모형을 기반으로 변수 설정 및 생존 분석 기법 벤치마킹